Stage 11 Coming Clean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데렉이 서치 선생님의 새 흰 정장에 초록색 물감을 묻히고 제이니가 그를 도와 정장을 깨끗이 씻어내려 하면서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Talking Points **(이야기해 볼 부분)**	- 앞표지를 보고 제목을 함께 읽으세요. 뒤표지의 글을 읽고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일지 물어보세요. - 이 이야기의 제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깨끗해지기(coming clean)'란 제목이 어떻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9쪽에 새 흰 정장을 옷걸이에 걸고 있는 서치 선생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서치 선생님은 새 정장에 신경을 쓸까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 10쪽에서 18쪽까지 데렉과 제이미의 대사를 함께 번갈아 가며 큰 소리로 읽으세요. 누가 서치 선생님의 대사를 읽을지 고르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아이에게 제목이 마음에 드는 지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다른 제목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 아이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바지를 스스로 빨았을지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선생님께 정직하게 사실을 말했을까요? -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낡고 헐렁한 바지 데렉과 제이니는 식당에서 잼 롤리폴리를 먹으며 서치 씨의 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치 씨는 그들의 선생님이고, 매일매일 같은 바지를 입고 학교에 출근해요. “바지가 너무 쭈글쭈글하고 헐렁해.” 제이니가 말했어요.
p4	“그리고 더럽고 두꺼워.” 데렉이 말했어요. “마치 낡은 행주 한 짝 같아.” “그리고 그걸 매일 입고 다니지.” “내 생각엔 선생님은 다른 바지를 입지 않는 것 같아.” “낡고 헐렁한 바지, 그게 바로 선생님과 같아.” 데렉은 포크로 푸딩을 집으며 덧붙여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다른 바지를 입었으면 좋겠어.” 제이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p5	그때 바로 그 ‘낡고 헐렁한 바지’의 선생님께서 식당에 나타났어요. 제이니는 입은 떡 벌어졌고, 데렉은 잼 롤리폴리 속을 으깨버렸어요. “무슨 일 있니?” 그가 말했어요. 제이니는 눈을 깜빡이며 무언가를 보았어요. 서치 선생님께서 새로운 바지를 입고 온 것이에요. 선생님의 흰 정장은 얼룩 하나, 주름 하나 없었어요. 식당에 있는 모두가 먹다 말고, 선생님을 봤어요.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얘들아. 먹어.” 얼굴이 조금 빨개진 서치 선생님이 말했어요.
p6	“와! 선생님께서 아주 달라 보이셔.” 데렉이 접시 너머로 몸을 굽히며 말했어요. “지적으로 보여. 더 일찍 이랬어야 했어.” 제이니가 확신에 차 말했어요. 점심 후에 제이니의 반은 체육관으로 몰려갔어요. “선생님 정장 멋져요.” 체육관에 들어오면서 제이니가 서치 선생님께 말했어요. “고맙구나, 제이니. 이 옷은 사실 ‘부모님과의 저녁’ 때문에 입은 거야.” “부모님과의 저녁이요?”
p7	“응, 그것 때문에 최대한 잘 보여야 하거든. 어때?” “그런데 그건 월요일까진 아니지 않아요, 선생님?” “나도 안단다, 데렉. 그냥 익숙해지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벤 선생님께서 부엌에서 카스타드 소스 접시를 팔에 들고 나왔어요.
p8	벤 선생님은 서치 선생님께서 밝은색의 새로운 정장을 입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풀짝 뛰었어요. “오 하느님!” 그녀가 외쳤어요. 벤 선생님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커튼 하나를 붙잡았어요. 카스타드 소스는 서치 선생님 쪽을 향해 공중을 날았어요. 데렉은 그것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잽싸게 길을 막아섰어요. 카스타드 소스는 흔들흔들

	공중을 가로질러 왔고, 데렉의 조끼에 떨어졌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데렉이 슬픈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운 카스타드 소스를 뒤집어쓰고 있었어요.
p9	"잘했구나, 데렉. 네가 내 새 정장을 지켜줬어." 데렉은 웃어보려 했지만, 그때 카스타드 소스가 반바지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 후에, 서치 선생님은 자신의 행주 같은 바지를 다시 입었어요. "깨끗이 보관해야 해. 잘 보관해야 해." 선생님께서 새 정장을 벽장 문에 걸어두며 말했어요.
p10	2. 아름다운 초록색 그날의 마지막 수업은 미술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재미있는 인물을 그려야 했어요. 제이니는 괴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제이니는 괴물의 눈을 핏발 서게 그리고, 코에서는 초록색 물감이 흘러내리게 했어요. 제이니는 초록색 물감에 만족했어요. 그러나 초록색 물감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제이니는 데렉에게 초록색 물감이 좀 필요한지 물었어요. "나는 초록색 물감을 쓸 데가 없어, 제이니. 나는 축구 선수를 그리고 있어." 데렉이 말했어요.
p11	"그럼, 그 사람 코에서 초록색 물감을 흘려 나오게 하면 되잖아. 안 그래?" 제이니가 말했어요. "싫어. 그럴 수 없어." 데렉이 말했어요. "그럼 초록색 물감을 배경으로 써. 잔디같이." "나는 괴물 코에서 나오는 초록색 물감 위로 내 축구 선수를 뛰어다니게 할 수 없어. 됐어." 데렉이 말했어요. 데렉은 제이니의 팔꿈치를 쿡 찔렀어요. 그러자 초록색 물감이 책상으로 쏟아졌어요.
p12	데렉은 물감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뒤로 가서 수건으로 손에 손을 문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건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뭘 한 거지?" 데렉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어요. 데렉은 서치 선생님의 새 정장으로 손을 닦은 것이었어요. "너 지금 한 짓, 선생님께서 보면 엄청 화낼 거야." 제이니가 말했어요.
p13	서치 선생님은 방 반대편에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들을 쳐다보더니 웃어 보였어요. "잘하고 있지, 거기 둘?" 선생님께서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 제이니가 밝게 말했어요. 제이니는 선생님께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제이니는 종이로 가지고 초록색 얼룩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바보 돌대가리야. 넌 지금 상황을 더 나쁘게 하고 있어. 얼룩이 지금 두 배로

	커졌다고.”
p14	정말 그랬어요. 제이니는 데렉을 보더니 골똘히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에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게 뭔데?” “바지를 옷걸이에 돌려놓은 다음, 학교 끝나고 깨끗이 해놓는 거야. 서치 선생님께서 와서 그림을 볼 때, 선생님의 정장은 여전히 벽장 문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 초록색 음영이 마음에 드는구나, 제이니.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p15	하교 시간에 서치 선생님은 오랫동안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 둘만 교실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둘은 의자를 이제껏 쌓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쌓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은 교무실로 떠났어요. 데렉은 싱크대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수도꼭지를 돌렸어요. 제이니는 바지를 들고 데렉에게 던졌어요. 데렉은 그걸 잡아서 싱크대로 빠트렸어요. 그리고 한 플라스틱병을 들고 바지에 뿌렸어요.
p16	“뭐 하는 거야?” 제이니가 소리쳤어요. “세제야. 얼룩을 지워 줄 거야.” 데렉이 말했어요. “그거 세제 아냐, 데렉. 그건 풀이야.” 바로 그때 서치 선생님께서 문밖에 있는 것을 들었어요. 선생님은 파카와 오토바이 바지를 입고 들어왔어요. 데렉과 제이니는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어요. “아, 아직도 여기에 있니?” 서치 선생님께서 말했어요.
p17	“거의 끝났어요, 선생님.” 제이니는 말했어요. 그리고 웃으려고 애썼어요. “그래, 깨끗해 보이는구나. 나는 지금 집으로 달려가야 해.” 그는 벽장에 있는 재킷을 확인하러 갔어요. “하지 마세요.” 데렉이 말했어요. “뭘?” “옷을 꺼내면 안 돼요.” “왜 안돼?” “왜냐하면…… 왜냐하면……”
p18	“왜냐하면, 그걸 더럽힐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놔두면 안전할 거에요. 안 그래, 데렉?” 제이니가 말했어요. 데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치 선생님께서 골똘히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손이 거의 반쯤 정장 자켓에 다가섰어요. “오토바이에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 같은 것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서치 선생님께서 손을 내렸어요. “그래, 그 말이 맞을지 몰라. 더는 사고는 원치 않아.” 선생님께서 말했어요.

p19	선생님께서 갔을 때, 그들은 바지를 비닐봉지에 넣고 몰래 데렉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둘은 부엌 싱크대에 바지를 집어넣고, 뜨거운 물과 세제를 분말 세제를 뿌렸어요. 그들은 바지를 뻣뻣한 솔과 비누, 그리고 철 수세미로 문질렀어요. 물에 거품이 어깨높이까지 차올랐어요. "효과가 있니?" 제이니가 물었어요.
p20	데렉은 거품을 치워내고 싱크대를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초록색이야." 데렉이 신음했어요. 그들은 주방 세제와 광택제와 마루용 세정제를 뿌렸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탁기처럼 바지를 두들겨야 할지도 몰라." 데렉이 말했어요.
p21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바지를 데렉의 정원 길에 위아래로 후려쳤어요. 하지만 먼지만 더 쌓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이니는 바지가 오그라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에겐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어." "그게 뭔데?" "바지를 세탁소에 가져가는 거야.'
p22	3. 영웅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데렉과 제이니는 첫차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바지는 꽁꽁 동여매서 둘 사이의 좌석에 놓아두었어요. 제이니는 그게 보기 싫었어요. 그들은 세탁소가 비길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이니는 여자를 보고 미소 지었고 그 여자는 웃음으로 답했어요.
p23	"바지, 데렉." 제이니가 말했어요. "그걸 뭐?" "바지 이리 달라고." "못해." "왜 못해?" "네가 바지 가져갔잖아." "아니, 난 아냐. 네가 가져갔어." 얼마간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바라봤어요. 그 때 데렉의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이니, 바지가 아직 버스 안에 있어."
p24	세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지쳐버린 채로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버스를 찾을 때까지 그곳을 서성거렸어요. 버스는 정류장 한구석에 정차되어 있었고, 밑으로 두 다리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뭘 찾는 거지?" 아저씨가 말했어요.
p25	"바지 한 벌이요." 데렉이 말했어요.

	“없어. 버스에서 바지는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입고 있던 바지 빼곤 말이야.” 아저씨는 머리를 휘저으며 기름 때 낀 누더기를 상자에 던졌어요. 그 누더기가 공중을 떠 갈 때, 그 더러운 꾸러미로부터 바지 한쪽 다리가 풀려 나왔어요. 바지 다리에는 초록색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저기 저 바지에요!” 제이니가 외쳤어요. “그래, 그래, 그래. 전에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남자가 말했어요.
p26	데렉은 스패너 끝을 써서 바지를 상자 밖으로 낚아챘어요. 데렉은 바지를 들어서 확인했어요. “오 이런.” 데렉이 말했어요. “전보다 더 나빠졌어.” 제이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우리에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월요일에 데렉과 제이니는 학교에 일찍 도착했어요. 그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바지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p27	버스에서 묻은 기름 때, 데렉의 정원에서 묻은 먼지들, 그리고 풀과 초록색 물감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 제이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지를 옷걸이에 다시 걸어두고 서치 선생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들은 서치 선생님을 복도에서 찾았어요. “제이니, 데렉. 이게 뭐니?” 서치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장이에요. 서치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할 말이 있어요.” 제이니가 용기 있게 말했어요.
p28	그러나 제이니가 말을 잇기 전에, 벤 선생님께서 복도로 뛰어와선 서치 선생님의 팔을 붙들었어요. “감자튀김! 감자튀김!” “됐어요. 고마워요. 벤 선생님. 감자튀김을 먹기엔 너무 이른 아침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서치 선생님. 부엌에 감자튀김이! 불타고 있어요!” “뭐라고요?” 서치 선생님은 부엌문으로 서둘러 달려갔고, 문을 밀쳐 열었어요. 검푸른 연기가 복도로 새어 나왔어요.
p29	“아이고 세상에!” 선생님께서 말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섰어요. “물을 좀 끼얹어 봐요, 선생님!” 데렉이 소리쳤어요. “그럴 수 없어. 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야. 불길을 잠재울 천 같은 게 필요해.” 서치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제이니가 손가락에 든 옷걸이에 걸린 정장을 발견했어요.
p30	“지금 우리에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치 선생님.” 제이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정장을 손에 쥐었어요.

	물론 정장은 엉망이 되었어요. 연기와 기름으로 얼룩져 버렸어요. 제이니는 서치 선생님에게 초록색 얼룩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깨끗이 하려고 했는지 말하려 했어요. 그러나 서치 선생님은 도통 듣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 그는 계속 말했어요.
p31	서치 선생님은 그 한 시간 동안의 영웅이었고, 자신에 오히려 뿌듯해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또 다른 정장을 사주기로 약속했고, 선생님은 또한 만족했어요. “아주 좋아. 나는 아주 밝고 좋은 흰색 옷을 가질 수 있어.” 서치 선생님께서 말했어요. "앗, 그러지 마세요.“ 제이니가 재빨리 말했어요. “왜?” “음, 저희 생각엔 초록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래, 데렉?” “훨씬 낫지. 저희에겐 초록색이 아름다운 색이에요.” 데렉이 끄덕였어요.
about the author 글쓴이의 말	나는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연극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덕에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라디오와 무대, 텔레비전 대본과 열세 권쯤의 동화책을 썼어요. 나는 끈적끈적하고 시럽이 듬뿍 든 플랜 파이나 번 빵을 정말 좋아하지만, 무언가를 발명해 본 적은 전혀 없어요. 나는 크리켓과 관련된 모든 것과 독서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와 가족들이 사는 케임브리지 주변을 도는 것도 좋아합니다.